

인구 이어 유권자수도 충청권에 추월당해 호남정치 위축 어쩌나

인구 역전 가속...영호남 위주 정치구도 변화 불보듯

광주와 전남·전북의 호남권 인구가 지난 5월 처음으로 충청권에 추월(광주일보 6월 11일자 1면)당한 데 이어 이번 달 말께면 충청권 유권자 수가 호남 유권자 수를 앞지를 것으로 보여 호남의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 큰 변수로 작용했던 영·호남의 지역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호남(30석)이 충청(25석)보다 5석 많지만, 인구와 유권자 수에 변화가 생기면서 충청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요구하고, 호남은 감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충청권의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가 호남권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8월 말 현재 충청권 유권자 수(주민등록 기준)는 세종특별자치시 9만 3255명, 대전시 119만5555명, 충청남도 162만4149명, 충청북도 124만8476명 등 416만1435명이다.

이 기간 호남권 유권자는 광주시 113만125명, 전남도 153만8684명, 전북도 149만3548명 등 416만2357명으로 충청권에 비해 고차 922명이 많은 상태다. 3년 전 호남(403만2567명)의 유권자 수가 충청(393만4220명)보다 9만8347명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10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충청권 인구가 매일 평균 3000명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청권 유권자 수가 사상 최초로 호남권을 추월하는 시기는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권자 수 추월은 양 지역간 인구 역전 현상 때문이다.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충청권의 인구는 525만136명으로 호남권(524만9728명)보다 408명이 더 많았다. 8월엔 충청권 525만9841명, 호남권 524만 9747명으로 석 달 만에 격차가 1만94명으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2017년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31만명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선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던 충청권이 하나의 정치권 주체로 떠올라 영·호남 지역구도에도 큰 변화 조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런 인구 구상의 변화는 호남을 전통적인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 고민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도 호남에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충청·강원 등 중부권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호남 인구는 정체상태지만, 충청권은 최근 세종시 출범 등으로

매달 3000여명씩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고 올 연말에는 6개 부처, 18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옮긴다.

세종시의 2030년 목표인구는 80만 명이다. 게다가 내년 7월에는 통합 청주시가 인구규모 100만명을 목표로 출범해 호남과 충청의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남지역은 초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은 전남 22개 시·군 중 곡성(29.9%), 신안(29.3%), 진도(28.9%) 등 17곳에 이른다. 30%를 넘긴 곳도 고흥(32.6%), 보성(30.1%), 함평(30.1%) 등 3곳이나 된다. 고령화 탓에 전남에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숫자가 신생아 숫자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인구의 역의 유출도 심각하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가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을 유출 7월말까지 전출자가 15만명으로 전입자(9만2000명)보다 5만8000명이 많았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경철 원장은 “모든 산업의 기반인 연구개발비는 충청권이 호남의 6배이기 때문에 사립과 기업이 충청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호남의 현안 사업을 챙기고, 기업을 이전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6~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에서 열린 금호타이어의 포물러원(F1) 타이어 필드 테스트에서 테스트 드라이버로 참가한 문성혁(F2 드라이버)이 머신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F1 진출 ‘가속 페달’

국내 업체 최초 스페인 서킷서 타이어 테스트

금호타이어가 ‘세계 최고의 레이싱 무대’ 포물러원(F1) 진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금호타이어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에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첫 공식 F1 타이어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F1 타이어 실차 테스트를 한 것은 금호타이어가 처음이다.

이번 테스트는 금호타이어가

2014년까지 3년 동안 타이어를 독점공급하고 있는 ‘오토 그랑프리’ (Auto GP·F1 전단계)에 내년부터 F1과 동일한 규격의 타이어가 공급되는 것과 관련, 기술 점검 및 F1 진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F1에서 타이어는 전략적 선택에 따라 승패를 좌우해 ‘타이어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불릴 만큼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다. F1 타이어

제작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미쉐린, 피렐리, 브리지스톤, 굿이어 등 4개 업체가 전부다.

금호타이어는 2007년 국내 최초로 F1용 타이어 시제품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경험으로 실전 노하우와 데이터도 충분히 축적했다. 이미 유럽 마스터즈 F3, 호주 F3, 중국 CTCOC 등의 공식 타이어로 지정됐다.

손병영 연구부장은 “F1용 타이어 시장에서 세계 정상급 브랜드들

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고 자신한다”며 “국내에서 기술력으로는 가장 F1에 근접한 만큼, 꾸준한 노력을 거쳐 F1 진출을 꼭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테스트가 열린 카탈루냐 서킷은 실제 F1서킷으로, 한국 선수 가운데 F1에 가장 근접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F2 드라이버 문성혁(23·성균관대4)이 직접 테스트 드라이버로 참여했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도 농어업유산 지정한다

체계적 보존·관리...세계유산 등재 전단계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등 전남 지역 농어업유산을 국제농업유산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전남도가 도지정 농어업유산 제도를 시행한다. 지역 농어업유산을 도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24일 전남도는 “최근 이 지역 농어업유산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일선 시·군의 신청을 통해 조만간

도농어업유산을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농림수산물부가 농업 유산에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해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이 제1호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도 농어업유산에 선정되면 세계중요농업유산·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컨설팅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슈퍼 벼멸구’에도 끄떡없는 전남 친환경 재배 벼 긴급방제 기간 별다른 피해 없어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농약에 내성을 가진 ‘슈퍼 벼멸구’로 인한 벼 피해가 급증했지만 전남의 친환경 재배 논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벼멸구 방제비 26억원을 투입해 나주 등 11개 시·군에 긴급방제를 실시하는 등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는

데 친환경농업이 유기농단계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에서는 병해충 피해가 전혀 없었다.

순천 별량에서 유기농단지 15ha를 일구고 있는 현영수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논에서는 벼 해충을 전혀 입지 않았다. 이곳은 새끼우렁이를 이용해 방제하는 한편 생육기에 청초액비 등 직접 제조한 영양제를 2~3

회 뿌려주고 7~8월에는 친환경경제적으로 병해충 예방적 방제했다.

전남도 전종화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벼멸구 발생 지구는 벼를 밀식 재배하고 과도한 비료를 사용한 곳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병당 적정 주수를 식재하고 토질에 따라 적절한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GSHIN UNIVERSITY
임학문의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2세기 약속의 땅
경상남도 곡성

추억의 증기기관차·가을장미와 함께하는

제13회 곡성 심청호문화대축제

The 13th Gokseong Simcheong Hyo Cultural Grand Festival

2013. 10. 02(수) - 06(일) 장소: 곡성섬진강기차마을

효/행/광/장	향/기/광/장	어/울/광/장	소/통/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후미마 심청 전국 주부 가요 열창 • KSC군민 노래자랑 • 제3회 전국 어린이 가요제 • 효나심청 건강체조 경연대회 • 교류 협력 도시 초청 공연 • 아시아인 한마당 • 2013 구곡순넛 장수벨트 일로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억의 음악다방 운영 • 황후미마 심청 백일장대회 • 장미공원생태관 옛보기 • 장미 시·각연·노랫말 전시 • 장미 하트·꽃마차 포토존 • 장미축제 홍보사진 전시 • 세계 우수장미 전시관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성상징 캐릭터 피모먼스 • 명품 ‘효’가운, 받기 • 마당극 ‘황후미마심청전’ • 청정수도 햇곡식 맛보기 • 전통 솜대 만들기 체험 • 곡성농경문화 전시 체험 • 전통 문화 전시 체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산물 전시 판매 • 맛촌 향토음식 판매 • 심청배 볼링대회 • 그라운드 골프 대회 • 자전거 라이딩 대회 • 심청 전국 배드민턴 대회 • 심청 전국 마라톤 대회 등

문의전화 061-360-8348 곡성군 /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